

기초수급자에 진학 기회 서울지역 대학은 '나몰라'

작년 4년제 대 기회균형 비중 11.6% 서울 주요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서울대학교 선발 비중 4.8%로 최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을 밑돌고, 특히 서울·연세·고려대 등이른바 SKY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전국 끌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7~2019학년도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9학년도 전체 입학생 35만914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6%(4만700명)으로 2018학년도(10.4%, 3만6440명) 보다 1.2%포인트(4260명) 증가했고, 2017학년도(9.7%)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2011학년도 이후 가장 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지난해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7%로 전년도(9.2%)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 서울 소재 대학별로 명지대 서울캠퍼스 신입생 1720명 중 355명(20.6%)으로 가장 높았고, 숭실대(15.4%), 서울과학기술대(14.9%)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9.3%로 전년도(8.8%)보다 0.5% 상승했다. 10% 이상 대학은 중

양대(14.8%), 서울시립대(13.0%), 동국대(12.5%), 한양대(12.4%), 경희대(11.9%), 건국대(10.9%), 숙명여대(10.0%) 등 7곳이었다.

이밖에 흥의대(9.9%), 한국외대(8.9%), 서강대(7.3%), 이화여대(7.0%), 성균관대(5.7%) 순으로 낮았고, 고려대(5.2%), 연세대(6.4%)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4.8%로 가장 낮았다.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평균 13.3%였고, 10개 교육대는 23.2%로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98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13.7%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9.61%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대학은 동국대(14.08%)가 유일했고, 10% 이상 뽑는 곳은 한양대(13.67%), 서울시립대(13.46%), 숙명여대(13.32%), 중앙대(12.44%), 경희대(11.60%)에 불과했다.

여명국 의원은 “소위 좋은 대학이라면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지금 같은 교육 불평등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면서 “정부가 기회균등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용수 기자 hys@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가 5일 저녁 7시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과 이촌지구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정연우 기자

가을 밤 수놓은 황홀한 불꽃 향연

Q 르포 |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19' 가보니

63빌딩·한강 바지선·원효대교 연계
한화팀, 스토리텔링 불꽃쇼 연출

“모든 것이 완벽한 최고의 밤이다.” 친구들과 함께 불꽃축제 현장을 찾은 대학생 한지혜(21)씨의 말이다. 지난 5일 열린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온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여의도 한강공원의 열기는 출제를 즐기려온 사람들을 뜨거웠다. 이날 축제에는 약 100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2~3시간 전부터 준비한 돛자리와 텐트로 객석을 꾸몄다.

여자친구와 함께 온 윤다훈(32)씨는 “사람이 많아서 입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말 저녁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오후 7시가 되자 개막 불꽃이 터지며 관객들에게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화 팀을 비롯한 스웨덴, 중국 등이 선보이는 화려한 불꽃이 가을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형형

색색의 불꽃이 터지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최우성(27)씨는 “어머니와 함께 불꽃축제를 즐기고 싶어 오후 1시부터 와 있었다”며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미소지었다.

이날 불꽃축제의 오프닝을 맡은 중국팀은 영화 쿵푸팬더의 삽입곡인 ‘히어로’를 시작으로 트와이스의 ‘팬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 어컴플리시드’, 상하이 룩시 뮤지컬스튜디오의 ‘쿵푸 파이팅’ 등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곡들에 맞춰 중국 특유의 웅장하고 강렬한 불꽃쇼를 선보였다.

두 번째 참가팀인 스웨덴팀은 아바의 ‘레이 올 유어 러브 온 미’, 샘 스미스의 ‘파이어 온 파이온’, 시아&데이비드 게티의 ‘티타니움’ 등의 노래에 맞춰 화려한 불꽃을 쏘아올렸다. 스웨덴팀은 비트에 맞춰 섬세한 불꽃 연출력을 선보였다.

불꽃축제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한 대한민국 대표 한화 팀은 저녁 8시부터 40여분간 가을밤 하늘을 환상적인 불꽃으로 수놓았다. 올해는 불꽃과 함께

63빌딩의 멀티미디어쇼를 연출해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스토리텔링 불꽃쇼를 연출했다.

올해에는 63빌딩과 한강 바지선, 원효대교를 연계해 세 곳에서 불꽃쇼를 연출해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불꽃축제에서는 작년에 처음 선보였던 원효대교 장치불꽃 연출을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샤이닝(SHINING)’ 등 글자를 불꽃으로 표현한 글자불꽃과 별의 반짝임을 표현하는 싸이키불꽃 등을 연출해 호평을 받았다.

축제를 즐기기 좋은 장소를 찾는 것도 관람객들의 관심 사항 중 하나였다. 메인 행사장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사람이 많아 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자리를 선점하지 못한 이들은 행사장 반대편인 이촌 한강공원 일대, 한강대교 전망대 쉼터, N서울타워 전망대, 선유도 공원, 사육신공원, 노량진 균린공원 등에서 가을밤을 수놓은 불꽃을 감상했다.

한편 한화는 ‘클린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환경정화 작업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봉사단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총 1500명이 행사장과 그 주변에 대한 쓰레기 수거 등 활동을 펼쳤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연구비 15% '교수가 꿀꺽'… 횡령액 44억

적발된 95건 中 국공립 대학 57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중 약 15%가 연구비 외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간 부정사용과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는 44억 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24일까지 약 4년간 총 95건의 연구 용도외 사용이 발견됐고, 학수 대상 금액은 44억64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한 연구비는 총 304억9600만원으로 연구비 외로 사용된 금액이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적발된 95건 중 연구자 소속이 국공립 대학인 경우가 57건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금액으로 보면 목포대가 8억3200여 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3억4100여 만원, 7건), 금오공대(1억7500여 만원, 3건), 경북대(1억2900여 만원, 5건), 전북대(1억300여 만원, 6건) 순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관리 감독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15개국 공무원, 서울과기대 철도연수 참여

15개 나라 20명의 철도 관련 공무원들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2기에 참여한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철도공무원의 석사과정을 진행해 글로벌 철도전문가 양성과 친환경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협회가 주관해 시행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진행된 1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는 11개국 22명의 연수생이 참여해 수료했다.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은 지난 4일 열린 연수생 환영식에서 “한국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서울과기대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돌아가 세계 각국에서 교통 발전의 핵심 인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연수생 모두에게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무량사 월주스님이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 월주스님 1억원 기부

동국대학교는 성남 무량사 주지 월주스님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에 사용해 달라며 지난 1일 윤성이 총장을 찾아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55기 총학생회 도 이 자리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600만원을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올해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으며, 지난 6월과 9월 각각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서강대, 12.78대 1로 최고 경쟁률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경쟁이 지난해보다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고시 완전 폐지 이후 로스쿨 입시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올해 응시생이 1만2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었다.

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4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21개 대학 로스쿨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5.06대 1을 기록, 전년도(4.91대 1)보다 상승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서강대로 스쿨로 40명 모집에 511명이 지원해 12.78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원광대(9.97대 1), 영남대(8.31대 1), 동아대(9.83대 1) 순이었고, 수도권에서는 아주대(6.90대 1), 경희대(6.50대 1), 인하대(5.78대 1), 서울시립대(5.02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대학별 경쟁률 등락을 보면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1개교가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0개교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서류전형 합격자나 1단계 합격자는 10월 25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로스쿨 별로 발표되고, 학교별 면접 전형 등을 치른 뒤 최종 합격자는 12월 6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